

한라시론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모 방송국에서 방영됐던 드라마다. 작고한 국민배우 신성일이 타이틀 토크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오래 전이라 가뭇하지만 한 장면만은 또렷하다. "내겐 밥 먹었다고 물어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70대의 노신사 정일의 종일거림. 소리 없는 아우성. 퍼뜩 '노인이 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책이 곁친다. 일본 기후현 이케다정에 자리한 노인요양시설 신빌리지 이야기다. '존엄 케어'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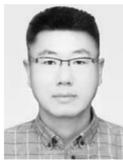
곳의 모토. 십 수 년 지났지만 부러 사나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롭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 치매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멋대로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 기저귀를 채우면 돌보는 사람에게 편하고 깨끗해 보일지는 모르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 당사자로서 못할 노릇. 가장 기본적인 배설행위마저 스스로 못하게 가로막힌 셈이다. 어르신은 나이지기는커녕 맥이 빠진다. 주눅 들어 되레 더 이상 일어설 기력을 잃어버린다. 어르신 자존에 생체기를 내기 때문. 그래서 그들은 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우선이다.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케어기술을 아주 섬세하게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 아니 제주에선 어떻게 아직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다. 대하는 태도도 나아졌다 말하기 어렵다. 갓난아이나 어린이, 또는 장애를 지닌 사람, 가난한 사람,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 등등.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들을, 여전히 우리는 그저 도움을 베풀어야할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돌이켜 볼 대목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밑바탕에는 상대방을 낮추어 보는 의식이 자리해 있다. 잘못된 편견이다.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시선이다.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인생에 책임질 권리가 있다.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치매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가난하거나 설사 어린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주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모양이다. '모두가 누리게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다며 정책당국은 너스레친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웬지 모자라 보이는 건 필자만의 기우일까. 과연 개개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게 준비되고 있는지. 제안한다. 제주에서라도 커뮤니티 케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해 보자.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마당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모든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도록 공동체(Community)가 나서서 설계(Design)해 보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Jeju for All... 모두를 위한 제주. '제주에만 가면 어린이도, 노인도, 여성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외국인도...누구든지 자연과 벗하며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열린마당

기초질서 지키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하자



백규범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인도(人道)위에 불법 주차로 인해 누구나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껴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스 승차대 주변, 공원, 올레길 등 외진 곳에 과자봉지 등 일회용 쓰레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장을 자주 보곤 한다. 기초질서란 무엇인가? 기초의 사전의미는 모든 사물의 기본이 되는 밑바탕이라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기초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해 각종 캠페인과 홍보, 그리고 단속을 추진하고 주민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으

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환경질서·교통질서·도로질서 3종류로 구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 투기 안하기, 일회용품 안 쓰기 등을 통해 '환경질서'를 지키고, 주변 주차장 이용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 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를 통해 '교통질서'를 지켜 나가고, 불통·페타이어, 상가 앞 노상 식탁·광고물,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안두기 운동으로 '도로질서'를 지켜 줄 것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쾌적한 거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나 혼자 편리 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야 하고 또한,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초의 시작을 다져나가고 정착시켰으면 한다. 이러한 밑바탕을 행정에서만 추진해 다져질 수 없기에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의 시작을 다져나가고 정착시켰으면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지역밀착 행보

4·3사업 성과·과제 공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71주기 4·3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의 시간을 마련. 4·3특위는 15일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대의협력국, 관광국, 교육청, 4·3평화재단을 대상으로 4·3추념식 등 추진결과를 보고받고 성과와 과제를 공유.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4·3관련 사업 추진 후 내부평가에만 그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각 사업 주체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 생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 표성준기자

3회 한길정보통신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사회를 학습지 도했는데, 올해 1차 중·고졸 검정 시험에서 13명 중 11명이 합격. 연금공단 관계자는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봉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 문미숙기자

검정고시 합격의 기쁨 누리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상륙학습지도봉사단이 15일 한길정보통신학교를 찾아 검정고시 대비반 수강생들과 합격의 기쁨을 공유. 지난 2월 교사 출신 은퇴공무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제주상륙학습지도봉사단은 2개월간 주 2~

표선면자치위원장 축하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를 중심으로 치러지며 작년 기준 250억 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는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지역밀착형 행보를 보여 눈길. 15일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는 6월 10~13일 열리는 12회 해비치아트페스티벌 계획을 안내하는 기자회견에서 문체부 장관, 제주도지사,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맡는 개막식 축사에 표선면주민자치위원장도 참여한다고 소개. 문예회관연합회 관계자는 "표선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의미를 살려 올해 처음 축사를 요청했다"고 설명. 진선희기자

사설

가축분뇨 불법 배출, 엄히 다스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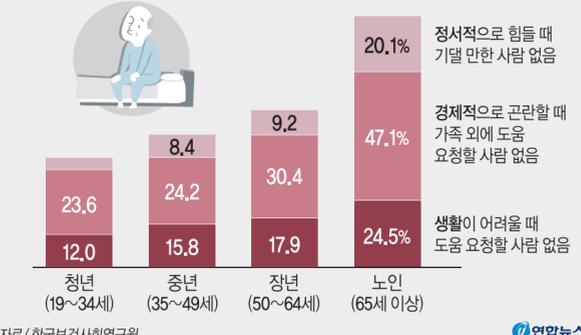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가 벌써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도내 290여 양돈농가로 구성된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도민들에게 사과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분뇨 무단 유출로 자연환경이 오염된 사실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불법배출은 여전히 끊이지 않아 큰 일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처리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제주시의 경우 2017년 60건, 지난해 55건, 올해 4월말 기준 20건 등 3년간 총 135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발건수는 2017년 7건, 지난해 10건, 올해 9건 등 총 26건입니다. 사용중지 명령 건수는 지난해 4건, 올해 2건 등 총 6건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2017년 15건, 지난해 10건, 올해 4월말 기준 5건 등 3년간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고발건수는 2017년 9건, 지난해 3건, 올해 2건이며, 사용중지 명령 건수는 2017년 4건입니다. 가축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이처럼 지속되는 이유는 다르게 아닙니다.

다. 바로 축산분뇨를 불법배출하 다 걸리더라도 관대한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해 얼마든지 빠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으로 유출하는 등 지난해 4건, 올해 2건이 적발됐지만 사용중지 명령을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사용중지 명령 처분 대상 4건 중 2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리한 겁니다. 알다시피 축산분뇨 불법배출은 단순한 환경훼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양돈장이 밀집된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가 2017년 8월부터 제주도 한림읍 상령리 일대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 지하수 광정 14곳 중 9곳이 지하수 환경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지하수는 일단 오염되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제주의 생명수와 직결된 사안을 과징금으로 넘어간 행정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픽 뉴스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다

2017년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사회적 지지 부재 실태 조사한 결과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남뉴스

부고 김창범 (前 국민대학교 교수) 아버지 김해김공 종업 (前 제주대학교 교수·향년 101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15일 00시 03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16일(목) ▶발인일: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현왕사 연화원 아 들 김창범 며느리 양남순 참서(喪) 장우 김숙희 딸 김정향 사 위 김유정 정임 강영진 정우 현창희 친족대표 김도선 ※ 연락처: 김창범 010-9928-9470 김창우 010-5574-2496 김정향 010-3690-7676 김정임 010-7220-2496 김정우 010-9636-5594

부고 송영진 (現 주)에스피콤 대표, 前 SC 제일은행 경기남부 본부장) 아버지 여산 송공 두경 (국가공공자·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15일 13시 1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16일(목) ▶발인일: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충훈묘지 부 인 오정만 아 들 송영진 며느리 권숙자 영상(喪) 김미라 영욱 박경숙 영근 이혜원 딸 송문심 사 위 윤여범 문자 정구호 ※ 연락처: 송영진 010-3897-8201 송영상 010-4691-9553 송영욱 010-5508-0993 송영근 010-3521-7099 송문심 010-4690-6651 송문자 010-2828-9922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 66㎡ 용도 의원, 사무실, 학원 등 전업종 가능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